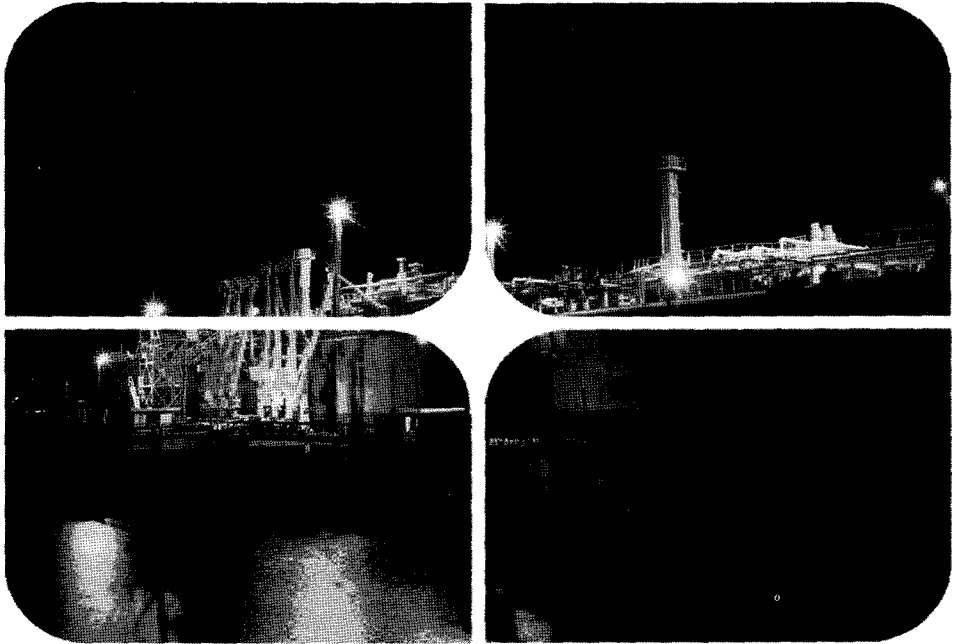


## 세계일류 종합가스전문회사로 도약하는 SK가스 주식회사



SK가스는 “안전을 바탕으로 고객과 함께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가는 세계 일류의 가스 전문회사”를 비전으로 1985년 설립된 이래, 환경친화 에너지인 LPG의 안정적, 경제적 공급과 수요개발을 통해 국내 LPG산업을 주도해 왔다.

SK가스 본사는 서울 여의도 63빌딩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울산기지와 평택기지를 비롯하여 중부, 경북, 경남, 강원, 호남지역에 5개의 영업소와 사우디아라비아에 중동사무소를 두고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는 자동차충전소 및 용기충전소 80여개소와 기기대리점 100여개소가 분포되어 있다.

'97년 신 CI도입으로 세계속의 SK, 고객중심의 기업으로 거듭 태어난 SK가스는 기업공개를 거쳐 '98년 매출액 1조2천여억원을 달성하였고 특히 '98년에는 국내 상장사중 1인당 영업이익 1위를 차지했으며 '99년 현재 자본금 총액은 431억원이 되었다.

'99년 1월에는 미국의 전력공급 1위, LNG공급능력 1위이자 연간 50% 이상의 신장율을 보이는 ENRON사와 SK(주)와의 합작회사인 SK-Enron사가 SK가스의 대주주로 참여함에 따라 SK가스는 더욱 투명하고 건실한 재무구조를 소유하는 세계적인 회사가 되어 가스관련사업으로의 진출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단일 지하암반 저장형태로 세계 최대 규모인 울산기지는 총27만톤(프로판 14만톤, 부탄 13만톤)의 저장능력과 연 250만톤이상의 처리능력으로

국내 수입 LPG의 50%이상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또한 남부지방에 편중된 수입기지를 탈피하여 불류비용 절감과 2000년대 수도권 LPG의 안정적, 경제적 공급 및 중국을 비롯한 해외시장 진출을 담당할 평택기지가 총17만6천톤의 저장규모로 1999년 10월 준공식을 갖고 정상 가동됨에 따라 SK가스는 총 45여만톤의 저장능력으로 정부의 민간비축 의무확대 정책에 부합하는 명실공히 국내 최대의 가스전문회사로서 국내 LPG 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해 가고 있다.

SK가스는 환경친화적 청정연료로서의 LPG의 질적 우수성을 적극 살려 가정/상업용, 차량용, 산업용, 석유화학용, 도시가스용 등 다양한 용도별 수요개발 및 확대에 노력하는 한편 Small bulk 공급, 집단공급 확대와 체적판매 실시 등 시스템개발을 통한 LPG 유통구조 개선, 가치차별화에 힘을 쏟아 LPG업계의 발전과 주요 에너지원으로서의 LPG의 위상확립에도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안전관리측면에서는 고객의 편리성과 안전한 가스의 사용을 위하여 '99년 3월에 안전관리 장기계획(1999~2008)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고, 안전관리 환경변화에 대응키 위하여 매년 안전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동 계획과 실행에 대한 수정과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범규준수차원의 방어적 안전관리 중심에서 벗어나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LPG 및 LPG 관련기기의 품질관리, LPG 충전시설 및 저장시설, Small Bulk에 의한 아파트의 체적설비공사의 설계, 시공 및 감독뿐만 아니라 매년 LPG 소비자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행하였으며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LPG 시설을 위하여 LPG시설물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1999년 3월에는 안전관리 강화차원의 일환으로 울산기지와 평택기지 양사업장에 안전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관리체계 즉 SMS(Safety Management



System)의 도입으로 사업장에서의 안전관리 수준을 극대화 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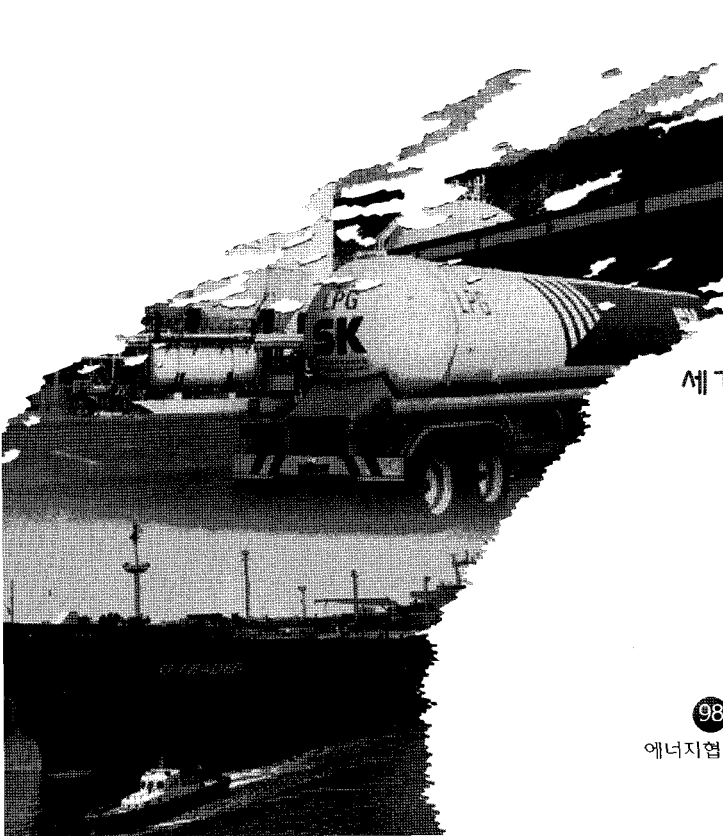
이밖에도 대리점, 직매고객, 최종소비자에 대한 정기적인 무상 안전점검 및 교육 실시를 통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스관련 안전사고 최소화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안전관리 Vision인 “고객의 안전을 최고의 기술로 보장하는 기업”과 안전관리 경영 목표인 “세계일류 가스회사 수준의 안전관리”를 모토로 SK가스 안전차별화와 SK가스 Brand 이미지 향상을 통하여 고객의 가스사용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편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등의 산유국들과 장기계약을 통해 국내 LPG의 안정적인 공급과 해외 LPG 분야에서도 다년간의 Trading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시장인지도를 활용하여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해외 LPG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99년에는 국내 최초로 중국에서 LPG충전사업을 개척하여 동북 3성지역의 장춘, 심양에 한중합자경영기업을 설립하고 LPG자동차충전소 및 용기검용충전소를 건설, 2000년부터 본격적인 영업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LPG 사업이외에도 부탄히터, 보일러 등 가스기기사업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해마다 신제품개발과 보급확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부탄히터의 경우는 해외에 수출도 하고 고객을 위한 A/S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99년 11월에는 LG-Caltex가스와 공동으로 연구 개발비 56억원을 투자하여 21세기형 저공해 대형 LPG엔진을 개발하기로 한국기계연구원과 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하여 국내 대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국민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었다.



SK가스는  
“안전을 바탕으로 고객과 함께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가는  
세계 일류의 가스전문회사”를 비전으로  
1985년 설립된 이래,  
환경친화 에너지인 LPG의 안정적,  
경제적 공급과 수요개발을  
통해 국내 LPG산업을 주도해 왔다.

이처럼 SK가스는 앞으로도 활발한 신규사업 개발을 통한 사업 다각화에 힘써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해 나갈 것이다.

최근에는 경쟁의 심화와 급변이라는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인재상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SK가스는 가장 큰 자산이 인력이라 생각하며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세계적인 기업으로 부상하기 위한 인력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교육훈련의 근간은 SK Gas-

JEMD (Junior Executive Management Development) 체계에 두고 있다.

이는 SK가스의 교육훈련이 직원들의 적성과 자질을 개발하여 미래의 경영주역으로 육성해가는 SK Gas-JEMD (Junior Executive Management Development) 체계에 바탕을 두고 있다.

특히 회사전체에 걸쳐 직위/직종별 핵심역량을 제시하고, 해당 역량의 요구수준 및 자신의 현재역량을 비교, 진단케함으로써 자발적이고 자기개발 중심의 인력개발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전사 공통 핵심역량에 대해서는 전사단위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직종별 핵심역량은 팀장의 책임하에 유연하고 Needs를 충족시키는 교육훈련을 병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자기개발 지원프로그램으로써 자격증 취득/활용 지원, 외국어 사내강좌/외부위탁교육 지원 및 정보기술교육 등이 있다. 둘째는 기본자질 교육으로써 직위별 핵심역량 교육과정이다. 셋째는 직무교육으로써 현업에서 판단하여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다양하고 유연한 교육지원시스템이다. 넷째는 선발교육으로써 잠재능력과 업적이 뛰어난 사람에 대해서는 해외MBA과정 등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현재 지식경영과 사내전문가제도 등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효율적인 회사인력육성을 진행하고 있다.

글로벌리제이션 21세기는 그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무한경쟁의 시대이다. 그러나 SK가스는 무한한 잠재력과 핵심역량을 가진 우수한 인력과 그동안 다져진 LPG산업의 기술력 및 탁월한 영업능력을 바탕으로 탄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면서 세계 최대의 지하저장공동을 자랑하는 울산기지, 평택기지를 중심으로한 세계 일류의 종합가스전문회사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며 임직원 모두가 긍지를 가지고 일하는 세계적인 대표기업으로 부상할 것을 다짐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